

식약처-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방안 논의

- ‘2026년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 간담회 개최
- 네트워크 참여 8개 협회·단체와 사업 운영방안 논의 및 현황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2026년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8개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현황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3월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약품 공급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수집 체계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 영향, 대체가능 여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장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개요>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최근 발생한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에 대한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긴급도입의약품의 안정공급과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한 ‘긴급도입의약품 재고공유 시스템’ 도입

준비상황을 안내하였다. 참석한 각 단체는 현재 의약품 시장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앞으로도 8개 전문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 안심 공급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	책임자	팀 장	권혁승 (043-719-2821)
		담당자	서기관	김선영 (043-719-2822)
담당 부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필수의약품관리본부	책임자	본부장	엄정윤 (02-2219-9820)
		담당자	대리	김민정 (02-2219-9848)

